

아침세평

김명화

교육학 박사



나무마다 하얀 밥알을 매단 이팝 꽃이 폈다. 5월이면 산하에 가득 핀 이팝 꽃을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얀 이팝 꽃이 바람에 흔들거리는 날 전남대학교 교정을 걸었다. 신록이 물든 교정에 하얀 이팝 꽃이 길 가는 사람을 멈추게 한다.

연휴가 길어진 덕에 거리마다 차량 행렬이 많다. 주말에 간단하게나마 이른 점심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찾기를 들었다.

한적한 찾집에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소풍을 나온 대가족이 찾집 마당에서 서성거린다.

카페는 노키즈 존(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라 어린이가 들어 올 수 없이 마당에서 다른 정소를 물색하는 대가족을 보면서 가정의 달 5월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본다.

마당이 예쁜 카페는 노키즈 존이라 차 한잔을 하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이기심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하면서 찾집 마당에 핀 물망초 꽃이 싱그럽고 햇살 가득한 공간이 좋다.

가족 간에 공유시간을 통해 삶에 대해서 생각해 접기는데 찾집 마당에서 중년의 아들과 손을 잡고 나온 어머니

가족은 성장합니다

가 산책한다.

중년의 아들은 어머니를 잔디밭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자신이 멀리 떨어진 다음 어머니에게 손짓한다. “엄마 한 걸음만 걸어보세요.”라는 말과 함께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무거운 몸을 움직인다.

아들은 걸음을 걷는 어머니를 안으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백발의 어머니를 위해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모자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갈린스키의 부모 됨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가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족이 형성된다.

긍정적인 가족의 성장을 위한 갈린스키의 부모발달 단계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성장을 위해 부모는 자녀로부터 도전받는 과업의 발달 단계에서 부모 역할 수행은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하게 한다.

부모로서 도전받는 과업을 갈린스키는 6단계로 나뉜다. 6단계는 이미지 형성단계, 양육의 단계, 권위 형성기, 실명하는 시기, 상호의존기, 떠나보내는 단계로 발달의 기초형성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향력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 형성기로서 부모는 결혼부터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부모로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 시기이다.

둘째 양육기는 자녀 출생 후 24개월로 걸음마기 단계다. 걸음마기 단계의 자녀와 적응하는 단계로 애착 형성과 신뢰감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양육에 연습 없이 부모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다.

이에 애착과 기본적 신뢰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는 관심, 놀이, 자극 등을 통해 자녀의 욕구를 충족을 통해 건강한 성격발달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위 형성기는 자녀의 만 2~5세 시기로 유아 교육기관

에 다니게 됨으로써 자녀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기본생활습관을 배우는 시기다.

부모는 자녀의 일관된 통제를 통해 스스로 행동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위를 형성한다.

이때 부모는 완벽한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고 유아 주도성 대 죄책감을 통해 자신의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양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가족은 부모에 의해 성장하고 학령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가 되면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성장하는 단계마다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마당에서 어머니와 마주한 아들은 6단계를 지나 부모와 다시 화기하는 시간이다. 중년의 아들은 노년의 어머니가 걸음마 단계가 다시 됐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 다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스하다.

어릴 적 자신이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의 시간을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시간인 것이다. 아들과 어머니의 걸음마 연습에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가정의 달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건강한 돌봄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 가족은 성장한다. 가정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 강조 기간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플스토이의 ‘안나카레리나’의 첫 문장이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뉘고 불행하다”는 불현 듯 생각나는 명문장이다.

기고

안상현

나주부시장



지난 3월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에서 역대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래 울머어 현재까지 3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의성군에서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맞물리며 산림과 주택, 시설물 등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재난을 넘어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경고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 현상과 그리고 강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의 발생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지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014년 492건에서 2023년 596건으로 1.2배 증가했다. 피해 면적은 137ha에서 4992ha로 36.4배로 크게 확대됐다. 2023년에는 산불 발생 596건, 4992ha 중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은 8건으로 전체 면적의 75%인 3769ha를 차지한다.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다.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산불 예방,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해답이다

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한 이후 15년이지나 시점에서 수목의 생장과 외형적인 모습은 이전의 70~80% 수준으로 회복하지만 산림 토양, 서식 동물 등 전반적인 산림의 생태계는 20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번 역대 최대 산불 피해를 낸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 대형산불은 산림 생태계 복구에 10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작은 불씨 하나, 사소한 부주의가 커다란 산불로 번질 수 있기에 우리는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주시는 지난 1월 24일 자로 산불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취약지 순찰, 실시간 마을 방송, 홍보물 부착, 캠페인에 힘쓰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직해 진화 기초 지식, 안전사고 예방, GPS 단말기 사용법, 산불 초기 진화 및 고립 시 응급조치법 등을 교육하며 민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은 11명씩 2개 조로 나누어 무단 소각 단속, 인화 물질 사전 제거, 산불 초동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나머지 29명은 읍면 산불진화대로 배치돼 예방을 위한 현장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산불 취약지역 254개소에 대해 담당

공무원 지정 책임관리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금성산, 덕룡산 등 10개 산, 총 16개소, 약 6000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7개 구간(27.5km)의 등산로도 폐쇄 조치했다.

이울러 유사시에 나주시·화순군·영암군에서 공동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를 신속한 현장에 출동시켜 초기 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 계도 및 홍보를 위해 산불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서약서를 제출 받아 경각심을 높였다. 등산로 및 전동시장 등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산림 관계기관 회의, 진화차량 및 장비 점검, 읍면동 합동진화훈련 등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산불 예방은 단지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산림 취사 행위, 담배꽂초 던지기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나주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취재수첩

청년이 ‘정치 주체’로 인정받길

양홍민

사회교육부 기자



지난달 29일 광주 동구YMCA 백제실에서 열린 ‘사회대개혁 청년공감버스’ 출정 기념 청년토론회는 청년과 정치의 단절된 관계를 성찰하는 자리였다.

“청년이 정치를 외면한 게 아니라, 정치가 청년을 외면했다”는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의 말은 청년 정치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국회의원 300명 중 40세 미만은 13명에 불과

하며, 청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약 30%를 차지함에도 정치적 대표성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청년 관련 법안의 가결률이 2.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해외 사례를 통해 청년층의 정치적 선택이 극단으로 흐르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독일, 스웨덴 등에서 나타난 정치적 변화가 경제적 불안과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하며 특정 정치세력이 대중의 불만을 ‘급진적 변화’라는 언어로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냉소와 거리감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반

복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청년이 정치의 주변부에 머무는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특정 진영이나 이념을 넘어서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 과거부터 줄곧 정치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부작용은 계속되고, 심화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넘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청년이 청년을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OPINION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사설

‘AI선도 도시 광주’만들기 최선 다해야

광주시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67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일부 증액돼 반영됐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1회 정부 추경예산안’ 13조8000억원에 광주시가 요구한 AI 전략사업 예산 153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25억원에서 153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임대와 인공지능 전환(AI) 실증 벨리(인공지능 2단계 사업)에 128억원과 검증장비 지원에 3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GPU 자원 임대와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국가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 컴퓨팅자원 지원, 인공지능 2단계 사업 등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일단 발동에 떨어진 불을 끄게 됐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추경이 지역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분위기속에서 시사했다는 점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광주시가 국가AI데이터센터 활성화와 국산 반도체 실증·검증 등을 위해 요청한 670억원 규모의 예산을 역외산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을 삭감하고 25억원만 반영한 채 국회로 넘겼다.

특히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올해 예산 미확보로 가용 GPU절반 가량이 멈춘 상황에서 이렇다가 사업이 좌초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샀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예산이 증액된 것은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로가 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 여의도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등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기재부 출신 지역구 의원인 안도철 의원(광주 동남구)과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 갑)은 국회에서 적극 협력했다.

AI는 21대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관련 공약을 내놓을 정도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 기술이다. 광주시가 대선공약 1호로 AI관련 인프라 확충을 들 정도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하지만 서울, 포항 등 다른 도시들도 이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AI선도 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지 바란다.

신안군 교통복지 정책 ‘눈에 띄네’

신안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해상교통 전문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설립했다고 한다.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신안군이 100% 출연해 만든 것이다.

이번 재단 설립은 국내 전체 섬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섬이 많은 신안군의 특수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신안군은 전체 1004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통수단으로 선박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수익을 쫓는 민간 선사가 선박을 운행하다 보니 운항시간 지연, 잦은 결항, 미흡한 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또 신안군 소유의 공용선박을 ‘신안군 도선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했지만 이 역시도 전문성·책임감 결여, 안전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

신안군은 이를 개선하고 안전과 편리성을 한 층 더 높은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설립계획 수립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이번에 신안교통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출범한 재단은 먼저 하의면~신의면~장산면 등 남부권역 항로를 공영화하기로 했다. 이 곳 항로는 그동안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해 왔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운항의 지속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신안군은 남신안농협에서 운영하던 여객선 3척을 인수해 공영화했으며, 선명도 천사 1·2·3호로 바꿨다.

이들 선박 제원은 천사 1호 364t급, 천사 2호 486t급, 천사 3호 720t급으로 총여객 1027명, 차량 119대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다. 천사 1·3호는 하의~신의~장산~목포 항로를, 천사2호는 안좌에서 장산·신의·하의 간을 신설 운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뿐 아니다. 신안군은 섬 주민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자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 2013년 알레도도를 마지막으로 완료한 버스 공영제는 현재 75대의 버스가 11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지난해 신안군이 실시한 ‘버스공영제 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용역’ 결과 연간 1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나타났다.

신안군이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